

신비로운 티베트 밀교 미술로 풀다

1987년 문연보성대원사 티베트박물관 소장 미술품 중 131점 가려 뽑아



티베트의 밀교미술 현장 스님 | 부다가리

티베트 사람들은 만다라나 불교 미술품을 제작하는 일 자체를 불성에 이르는 과정이며, 동시에 깨달음을 향하는 수행과 같은 것이라 여긴다. “좋은 불교영화를 만드는 것은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티베트 승려출신의 영화감독 키엔츠 노부의 말처럼.

특히 티베트인에게 있어 불교는 강한 정신력으로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미술품에는 티베트인의 기도와 수행, 그리고 신행 등이 작품에 그대로 농축돼 있으며, 그들 삶의 세계 뿐만 아니라 죽음 뒤의 정신 세계

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한다.

1987년부터는 바로 이런 티베트 유물을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전남 보성대원사 티베트박물관(관장 현장 스님)이 그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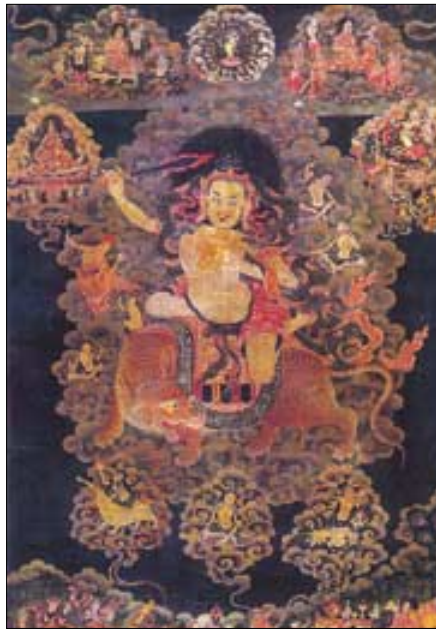
최근 티베트 박물관이 출간한 도록인 <티베트의 밀교미술>은 박물관이 소장한 미술품 가운데 131점을 가려 뽑아 정리했다. 이 책은 티베트 밀교 도상을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화(탕카), 조각(불상), 공예, 밀교법구, 불경(금사경, 경전 덮개 장식), 생활민속품(차도구, 갑실조각) 등으로 분류해 놓았다.

책에 실린 작품들은 현장 스님이 20년전 티베트와 인연을 맺으면서 그림, 조각, 공예, 민속품 등을 조금씩 모아온 것이다. 대체적으로 19세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것들로 분포된 이 작품들은 티베트 불교의 세계와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회화인 ‘탕카’다. 탕카는 중생의 욕망과 번뇌를 이겨내고 지혜와 자비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는 정도의 세계가 핵심을 이룬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탕카에 그려진 도상은 불보살, 조사, 호법, 수호존, 만다라 등으로 그 종류도 다양한 도상 자체가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다.

티베트 불교에는 전통적으로 님마파, 사카파, 깔마파, 겐룩파 등이 존재하는데 이 책에는 이 종파들의 조사도(禪師圖)도 수록돼 있다. 이 그림들은 티베트 불교 역사상 발자취를 남긴 유명한 인물들을 그린 것으로서, 종파의 내력과 계보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중 겐룩파의 창시자인 쯡카과(1357-1419)의 그림이 많이 그려진 이유도 그만큼 티베트인들에게 차지하는 그의 위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수명연장(壽命延長)과 구복(求福) 및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성된 ‘타라보



쯡카파의 변신중 문수보살(사진 위)과 나무위에 채색한 경판 덮개.

살’이나 ‘호법존’도 이 책에 등장한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다 보면 티베트의 대표적 미술품인 ‘만다라’ 도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왜 일까?’ 의아해 하겠지만 ‘티베트 만다라’는 인도와 네팔의 만다라에 비해 형태와 종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설명에 필요한 지면이 많이 할애된다.

또한 도상의 이해도 쉽지 않으며 더욱이 티베트 민간신앙과 점성술의 영향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혼재돼 난해하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는 제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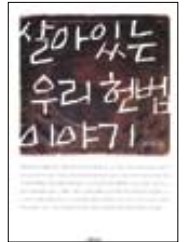
이 책에는 또 법구와 공예품도 실려 있다. 티베트 불교 의식에 쓰이는 법구들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인골로 만든 의식구들이다.

빠로 만든 악기나 그릇 등 법구류는 티베트 불교에서의 주술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밀교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책 말미에 붙은 티베트 탱화로 그린 한국 고승 진영도 흥미롭다. 티베트 부부화(부부)인 탁삼과 체링, 왕궁화가 막말이 구산·정화·초의·성철·서용 스님 등을 그렸는데 사실감이 뛰어나 마치 영정 사진을 보고 있는 듯 정교하다.

현장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삶의 고통과 불행을 깨달음으로 바꾸어 주는 티베트의 지혜와 불교 문화예술을 바로 이 한 권의 책에 정성껏 담으려 노력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
한상범 지음 | 삼인 펴냄 | 1만8천원

이 책은 헌법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한상범 교수가 쓴 일반인을 위한 헌법 해설서다. 40년 넘게 동국대에서 법학을 가르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을 지낸 헌법학자 한상범(69)씨의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값진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우리 헌법의 중요 조항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단순헌법 조항의 변화만 살핀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의 헌법정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 헌법이 모태로 삼고 있는 사상의 법 제정 역사를 따져가며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헌법 교과서’를 표방하며 학자나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편에서 헌법을 해설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도 독자들이 편하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헌법은 ‘권력자의 족쇄이자 시민의 무기’라고 강조하고 헌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 권력자의 욕심에 의해 훼손되고 칼질 당한 사사오입,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우리의 헌정사를 훑어보면서 어느 규정이 개

‘보통사람’ 위한 헌법 교과서

헌의 핵심이고 어느 규정이 장식 문구에 불과했는지 대담하게 폭로한다.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독재의 잔재도 비판한다.

우선 그는 1948년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 조선총독부 법제가 식민지 탄압과 봉건 잔재가 결합돼 있는 사이비 근대 법제였고, 광복 후에도 우리 손으로 이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분다. 목적인 헌법이 ‘시민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둔갑한 점이다.

1996년에 검찰이 12·12 쿠데타 주역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라는 법리를 내세운 것을 두고 그는 “이미 대통령이 되어 버렸으니 기정사실로 수긍해야 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며 “군사정권 30여 년을 법률가에게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법철학 자체를 포기하는 법적 허무주의를 심어 놓았다”고 한탄했다.

대표적 언론 탄압 조항인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죄와 불고지죄는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낫지만 수사과정에서 재판에서 이런 법리가 소용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의 문제도 꼬집었다. 대통령의 경우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필요할 때에 계엄권과 긴급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일본 메이지(明治) 헌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를 돌아볼 때 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자부심을 가질 대목도 많다는 평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우리 헌법 전문에 언급된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 4·19이념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산물이었으며, 이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로 시작되는 일본의 헌법보다 훨씬 자랑스러운 것입니다.”라는.

최승현(법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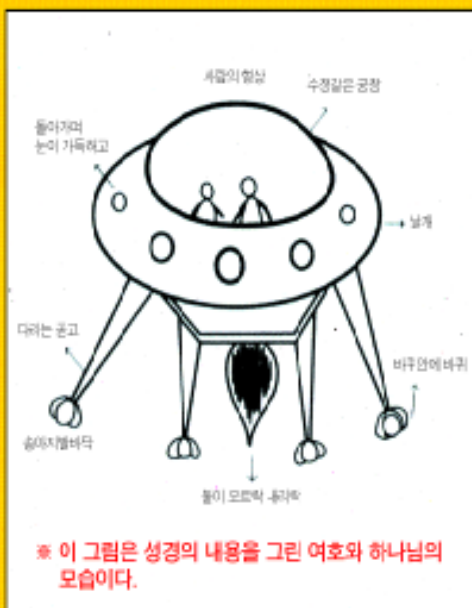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해왔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상(단상)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 비위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 수평같은 공방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아케트르사)
- ▷ 공방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도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형의 형상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앞에 광명이 비추는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3823-0829 FAX.04238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鬼神)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무지함이 불라발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으로 사모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를 육질 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퀘번과 비파와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떨어질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핵노동을 보았는가? 무지함이 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오.

불꽃속의 명당

만성지음

매장과 화장, 그리고 명당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화장에는 10가지 이로움이 있고 매장에는 10가지 해로움이 있다.

도서출판 초동 02)738-5791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도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